

“기술개발본부” 소개의 글

이영욱/연구개발부과장, 편집위원

우리의 현실

97년 UR전면개방 및 세계화시대에 건설산업 경쟁력 대비방안 중 하나가 ‘기술개발’이라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의 내용을 인용하면 “선진국 업체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기존의 국내공사 관행을 무시하고 국제관행에 따라 각종 분쟁(Claim)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와 절차부족도 기술력과 연관성을 가지며 준비하여야 하는 주요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40대 건설회사를 상대로 국제경쟁력요소 30가지 항목을 설문한 결과에서 첫번째 주요항목은 ‘전문적인 프로젝트의 경영능력’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Global 시장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의 엔지니어링 기술외에도 프로젝트 발굴, 기획, Project Financing과 같은 ‘프로젝트 관리기술’이 매우 중요시될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선도건설사의 브로셔를 보면 소위 ‘Soft Technology’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항목이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기

술을 표현하는 용어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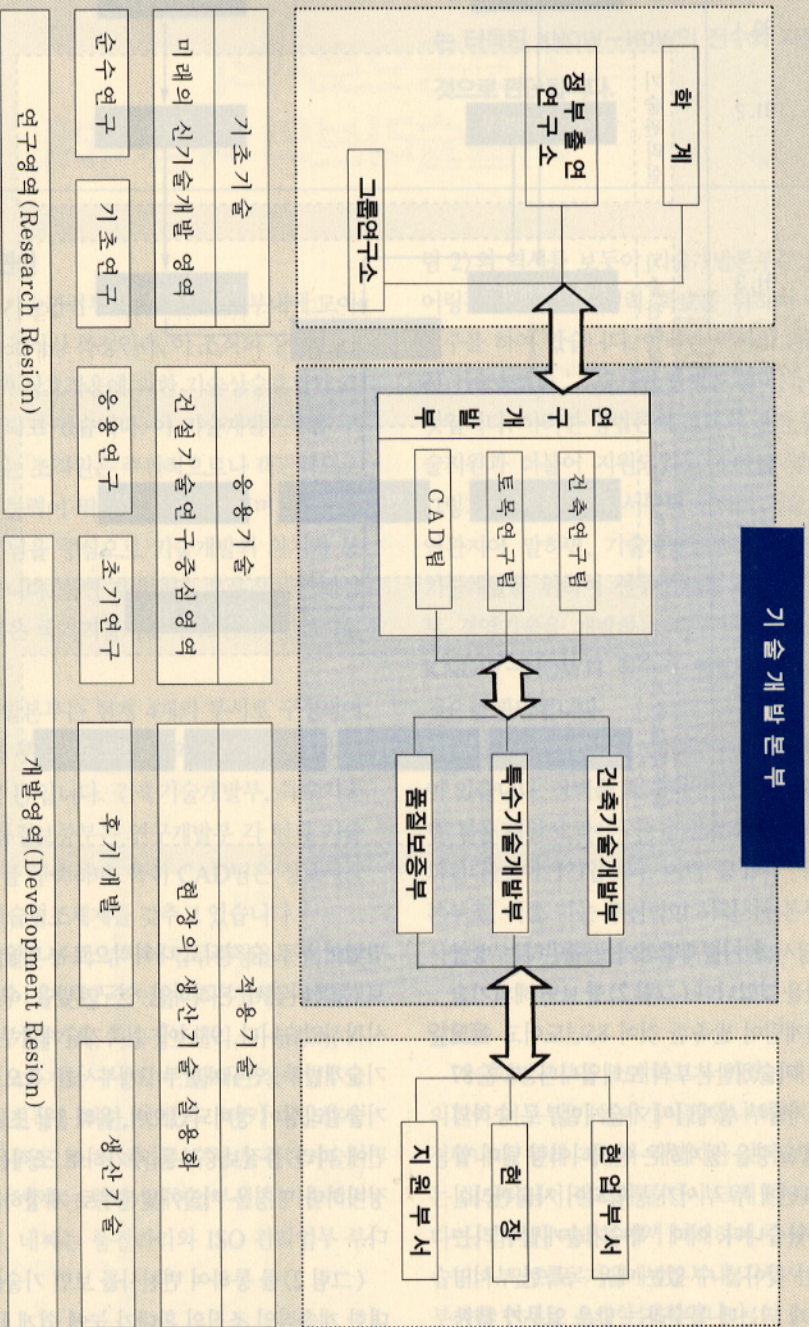
일반적인 기술개발의 단계는 크게 3단계(기초기술→응용기술→적용기술 : <그림 1> 참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초단계는 대학이나 정부 주도 연구소에서 수행할 기반기술 부분이며, 적용단계는 현장에서 적용가능도록 하는 생산기술이며, 응용분야는 기초단계와 적용단계 사이에 있는 요소기술을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내 건설부문의 기술개발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각 연구단체의 체계성이 정착되지 않았고, 기술개발 투자면에서도 소위 첨단이라는 전기, 전자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2년 산업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GNP중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인 데도, 현재까지 건설분야 기술개발투자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가 장황하지만, 상황이 어찌되었건 기업의 생존목적상 기술개발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대명제일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의 분야는 엔지니어링 및 경영분야의 기술로 구성되어 그 폭이 매우 넓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주체는 특정 기술관련 부서만의 몫이 아니라 사내 ‘모두가’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당사로 말하면 기술개발본부와 각 사업본부 뿐 아니라 사업지원본부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면 기술개발본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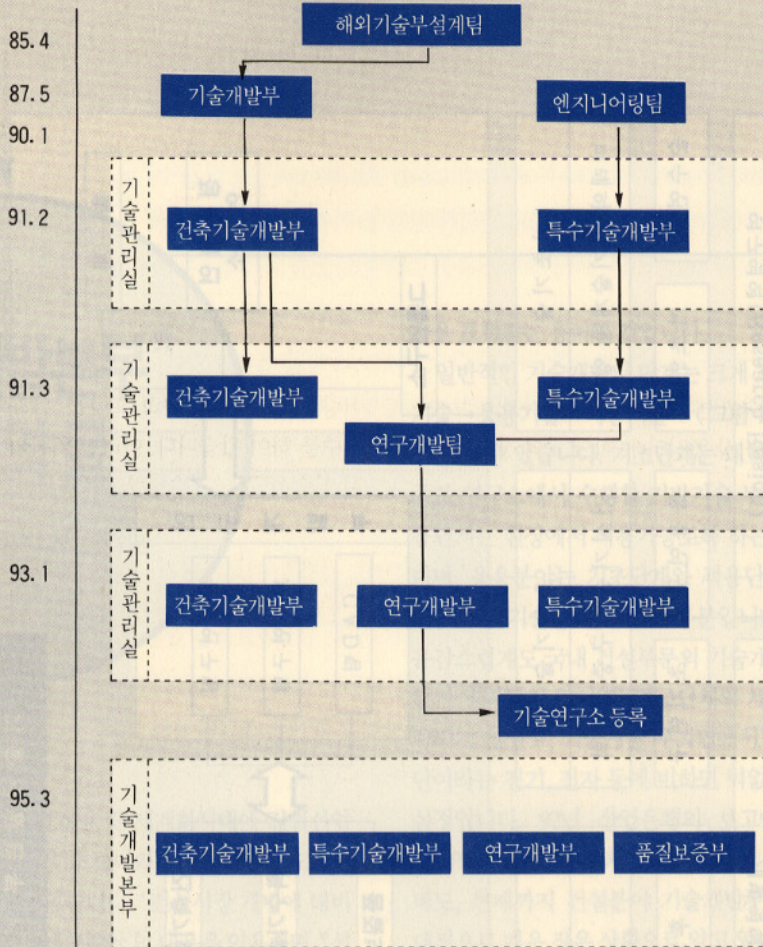
역동적인 역사

먼저 기술개발본부의 역동적인 역사를 살펴보

〈그림 1〉 '기술개발본부'의 역할과 기능



〈그림 2〉 기술개발본부 변천사



는 것이 당시의 기술개발의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그림 2〉를 보면 해외기술부내에 설계팀이 발족한 것이 85년도이고 이것이 현재의 기술개발본부의 토대입니다. 그후 87년에 해외기술부 설계팀이 기술개발부로 승격되고, 90년에 교량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팀이 발족되고, 91년에 두 부서가 통합되어 기술관리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때 ‘특수기술개발부’라는 타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부서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수라는 말은 업무가 特秀해서가 아니라 영문표기 ‘Advanced’를 번역하면서 나오게 되었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91년 특수기술개발부내에 연구개발팀이 설치되어 연구개발의 태동기를 거쳐, 93년에 연구개

발팀이 부로 승격되고 대외적으로는 기술연구소로 등록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3년에 건축기술개발부, 특수기술개발부, 연구개발부 3개부서를 축으로하는 기술관리실이 정비되었으며, 올해 3월 초 조직개편에 따라 품질보증부를 추가하여 조직을 확대정비하며 명칭을 기술개발본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림 2〉를 통하여 변천사를 보면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조직의 확대가 눈에 쉽게 들어 올 것입니다. 즉 당사는 기술개발의 절실한 필요와 의지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팀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기술개발본부까지 그 과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기술개발본부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위하여 선두주자의 역할을, 프로젝트 경영기술을 개발하는 각부서에게는 터득된 KNOW-HOW의 전수와 지원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과 연관성

당시는 기술관련부서를 하나의 본부내에 모아 놓은 것이 조직상 특징인데, 이 조직의 장점은 기술집중력과 상호작용에 의한 기술상승효과가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개발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은 주관적이나 객관적으로 개개인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며, 현재 최상열 전무님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의 의지가 뭉쳐져 있습니다. 잠깐 자랑하면, 본부장이신 최상열 전무님은 국가기술자문역 15인 중 한분이십니다.

기술개발본부는 현재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와 타부서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입니다. 건축기술개발부, 특수기술개발부, 품질보증부는 연구개발부 각 팀과 기술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CAD팀은 정보시스템부와 기술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본부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개발업무로 기술기획, 기술정보관리, 기술축적, 자료관리의 4가지로 구성되며, 둘째는 설계업무로 '공사입찰전적을 위한 설계'와 '턴키 대안설계'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업무 수행과 관련기술의 축적이며, 셋째는 현장 및 현업부서의 기술지원 업무이며, 넷째는 품질관리와 ISO 관리업무 부문입니다.

기능과 역할

기술개발본부의 기능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응용과 적용분야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본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림 2>의 역사를 보듯이 기술개발본부는 엔지니어링부문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경주를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속에서 기술습득과 '기술개발 방법론'을 터득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설계와 전적 등의 기술지원과 더불어 지원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서두의 전사적 기술개발과 연관지어 말하면, 기술개발본부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위하여 선두주자의 역할을, 프로젝트 경영기술을 개발하는 각부서에게는 터득된 KNOW-HOW의 전수와 지원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동냥으로 알게 된 것인데 '송곳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장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뾰족한 침을 세워서 작은구멍을 먼저 뚫어야 쉽게 돌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송곳이 기술개발 본부로, 이를 미는 추진력이 사업지원본부와 각 사업본부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개발본부를 소개하고자 하였는데 필자의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적어 걱정됩니다. 원래 기능과 역할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서 필자의 줄건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임직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기술개발본부내 각부서와 관련 부서를 연재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 소개의 난을 통하여 기술개발을 행하고 있는 각부서를 좀 더 깊이 이해하여 기술개발의 튼튼한 끈이 연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